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 대학 체제의 재편과 강원대학교의 전략적 대응

인프라 혁신, 교육·평가체계의 재구성, 학문 구조의 재편을 중심으로

Reconfiguring the University System in the Era of Generative AI: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Strategic Response Focused on Infrastructure Innovation, Educational and Assessment Reform,
and Academic Restructuring

박인옥*

국문요약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은 교육 혁신을 넘어 캠퍼스 인프라, 평가 시스템, 학문 조직 구조, 산학협력 관계에 이르기까지 고등교육 전반을 재편하고 있다. 대학들은 다중 대형언어모델(Multi-LLM) 환경, 통합 정보 플랫폼, 강화된 내부 데이터 가버넌스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기술의 수동적 수용에서 제도적 관리 및 감독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교육 영역에서는 학생들의 광범위한 AI 활용으로 인해 투명한 사용 기록 증명을 요구하는 공식 지침이 마련되고 있으며, 과정 중심 평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학문 구조 측면에서는 AI 특화 대학 및 전문 트랙이 확대되는 한편, 인문사회계열에서는 배제가 아닌 비판적 수용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국가 혁신 정책, 산업적 전환, 글로벌 경쟁이라는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전개되며 대학 간의 전략적 차별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살펴보고, 지역 거점국립대학으로서 강원대학교의 전략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지속 가능한 AI 도입이 DMZ 관련 연구 및 강원도의 문화유산 등 고유 자산과 지역 산업의 강점에 발맞추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핵심 과제는 기술 도입의 속도가 아니라, 지역의 현실과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부리를 둔 장기적인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것이다.

핵심어 생성형 인공지능(AI), 대학 체제의 재편, 교육 및 평가 체제의 재구조화, 학문 구조의 재편, 강원대학교

- 차례**
1. 서론
 2. 캠퍼스 인프라 전환과 운영 구조의 재편
 3. 교육과 평가 체계의 재조정과 제도화
 4. 학문 구조의 재편과 인문 사회 분야의 대응
 5. AI 전환 국면에서의 대학의 전략
 6. 마무리와 과제

1. 서론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은 이제 특정 산업의 기술 혁신을 넘어, 국가 전략과 안보, 경제, 산업 구조, 사회적 규범과 제도 전반을 재구성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기업에서는 직장인 다수가 업무에 AI를 활용하고, 기업 운영에서도 AI를 도입하고 있다.¹ 지방자치단체에도 민원 응대와 문서 작성, 정책 안내에 AI를 적용하며 이를 표준

¹ 연합뉴스 보도 참조. <https://www.yna.co.kr/view>; 박종진,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AI운영학과 교육과정 개발」, 『문화기술의 융합』 8(6),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2.

서비스 모델로 정리하고 있다.² 그리고 초중등 교육에서도 AI 활용 지침과 평가 기준이 마련되었다.³ 이처럼 AI는 이제 더 이상 단편적인 활용 보조 도구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재편하는 혁신 동력이 되었다.

대학 역시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에 있다.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서 AI는 보고서 작성, 자료 정리, 연구 보조 등 학업 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것은 학습 지원 도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학업 결과물의 진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새로운 쟁점을 제기한다. 실제로 일부 대학에서는 AI를 활용한 부정 행위 사례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AI 사용에 대한 제도적 통제와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AI 활용의 교육적 가치와 학업 윤리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정책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부 대학은 AI 활용에 대한 제도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학업 수행 과정에서의 활용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대응을 시작하였다. 한림대는 다수의 거대언어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을 통합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생성 데이터를 대학이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립대는 통합 LLM 기반 서비스를 도입하여 학사와 행정을 플랫폼 위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UNIST는 'AI 캠퍼스' 전략을 통하여 전교생을 대상으로 AI 활용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 측면에서, 서울디지털대는 AI 전공학과를 신설했고, 숭실대와 KAIST의 인공지능 단과대학 설립한 것을 통해 학문 체계의 재편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인문사회 및 예술계열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에서는 창작과 번역, 비평 수업에 AI를 과목 운영에 편입시켜 새로운 공존

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⁴ 이제 이 같은 변화는 특정 대학의 자율적 선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AI 활용 관리 기준을 제시하며 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중점 대학 지정과 첨단 인재 양성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변화는 더 이상 특정 대학의 자율적 결정 선택의 차원에서만 설명되기 어렵다. 정부 차원에서의 정책적 개입과 제도적 정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AI 활용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중점 대학 지정 및 첨단 인재 양성 정책을 확대함으로써 대학의 AI 대응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⁵

이러한 상황에서 거점 국립대학인 강원대학교(이하 강원대로 약칭)는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⁶ 일부 지역 대학이 이미 AI 관련 기반 사항을 선제적으로 정비한 데 이어, 수도권 주요 대학들 또한 학문 체계를 재구성하며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적 환경에서 AI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거나 형식적 계획에 그치는 수준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AI 융합 교육의 체계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관리 원칙의 정립, 인문사회 분야에서의 비판적 AI 활용 역량 강화, 그리고 행정과 연구 환경의 구조적 개선은 개별 과제가 아니라 하나의 통합적 전략 속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의 책무와 학문적 공공성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거점 국립대학의 위상을 고려할 때, AI는 단순한 기술 도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 운영 전반의 방향성을 재정립하는 중

2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 참조. <https://nsp.nanet.go.kr/plan>.

3 이수환·송기상, 「초중등교육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시사점 탐색: 국내·외 가이드라인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8(5), 한국정보교육학회, 2024.

4 임효진, 「AI는 대학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지식의 개념도 바뀐다」, 『교수신문』, 2025.9.18.

5 교육부,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 발표」, 2025.11.10. <https://www.moe.go.kr>.

6 정재연,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현황과 과제」,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 20,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4~17쪽.

대한 과제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변화를 대학 캠퍼스 인프라의 전환과 운영 구조의 재편, 교육과 평가 체계의 재조정 및 제도화, 학문 구조의 재편과 인문·사회계열의 대응, AI 전환 국면에서의 대학 전략이라는 네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각 항목에 대한 검토는 생성형 AI가 대학 제도의 어느 지점에서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 특히 거점 국립대학인 강원대의 경우, 이러한 분석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제도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캠퍼스 인프라 전환과 운영 구조의 재편

생성형 AI는 초기에는 강의실 내에서 보고서 작성의 보조 도구나 질의응답 도구로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학 운영 구조 전반을 재구성하는 단계로 확산되고 있다. AI는 연구 기획과 설계, 학사 행정, 정보 관리 체계 등과 결합하며, 대학 사회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단순한 학습 보조를 넘어 조직적이고도 제도적 수준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혁신 기술 도입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대학 운영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최근의 변화는 특정 연구자나 학과 단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 본부의 전략과 정보화 정책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한림대의 사례는 이러한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한림대는 27종의 거대 언어 모델을 통합한 멀티 LLM 구조를 구축하여, 구성원이 목적에 맞는 AI 모델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⁷ 특정 단일 AI 모델

에 의존하지 않는 구조는 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생성 과정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외부 플랫폼에 맡기지 않고 대학이 직접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 있다. 대학의 연구 자료, 학습 기록, 질의 및 응답 데이터는 단순한 대학의 정보가 아니라, 향후 대학의 교육, 연구 정책 수립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필수 자산이다. 대학의 모든 데이터 관리 권한을 내부에 두려는 한림대의 시도는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대학 운영에 중요한 인프라로 인식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서울시립대는 최근 통합 LLM 기반 정보 서비스 ‘AI Chat’을 도입하여, 학사 안내, 행정 질의, 연구 보조 기능을 하나의 창구로 통합하였다.⁸ 수강 신청, 장학 제도, 졸업 요건과 같은 재학생들의 반복적인 질문과 문의는 해당 플랫폼에서 즉시 해결되고, 교직원들은 학교 규정의 검색과 행정 문서 등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편의성 개선을 넘어 학교 행정 전체를 재편한 것이다. AI의 도입으로 대면 중심이나 인력 중심의 대응 방식이 아니라, 시스템 중심 구조로 이동했고 업무의 처리 방식도 이에 맞게 변화되고 있다.

UNIST가 제시한 ‘AI 캠퍼스’ 비전도 같은 맥락에 있다. 전교생을 대상으로 ‘1인 1생성형 AI’ 체계를 도입하고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AI를 더 이상 선택적 도구가 아니라 기본 학습 환경의 일부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유료 모델 구독을 포함한 AI로의 학습 환경의 재편은 기존 강의실의 폐쇄적 환경과 교수법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것은 구성원의 디지털 역량을 대학의 경쟁력과 직결된 요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⁹ 아울러 서강대도 향후 10년간 총

합뉴스, 2026.2.10.

8 정희경, 「AI를 모든 학문과 도시 문제 해결의 기반으로 삼겠다」, 『한겨레』, 2026.2.9.

9 김재기, 「생성형AI 유니아이(UNIAI) 공개, 국내 대학 최초 자체 개발 GPU 인프라 직접 구축」, 『Unist』, 2025.11.11.

7 강태현, 「한림대, 캠퍼스를 AI 활용 인프라로 전환...멀티 LLM 도입」, 『연

150억 원을 투자해 서강 AI 센터(Sogang AI Center)를 구축하여 고성능 GPU 기반의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중심으로 AI 교육·연구·산학협력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재편할 계획이다.¹⁰

이처럼 대학이 AI 중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흐름은 단순한 편의 개선을 넘어 연구와 행정 운영의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통합 플랫폼에 데이터가 축적되기 시작하면 의사 결정의 방법 또한 달라진다. 그동안 경험이나 관행에 크게 의존하던 판단은 점차 분석 결과와 통계 자료에 기반을 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교육과정 개편, 연구비 지원 배분, 학생 지원 정책 역시 데이터 해석을 통해 조정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것은 대학 운영의 기준이 감각적 판단에서 플랫폼 기반 관리로 서서히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행정 영역의 변화는 더욱 직접적이다. 반복적인 민원 응대, 규정 안내, 내부 문서 요약과 같은 업무는 상당한 시간과 전문 인력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AI 기반 시스템은 이러한 과정을 자동화하거나 보조함으로써 행정 부담을 경감한다. 특히 다국어 안내 기능은 국제화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된다. 여러 언어로 학사 정보를 제공하고 질의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외국인 학생과 연구자의 접근성을 높인다. 단순 번역을 넘어서 상황과 맥락에 맞는 안내를 제공하는 시스템은 대학 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결과적으로 AI 인프라 전환은 연구 생산성, 행정 효율성, 국제 경쟁력을 동시에 겨냥하면서도, 대학 운영의 판단 구조와 서비스 방식까지 재조정하는 변화를 동반하고 있다.¹¹

그러나 이러한 AI 인프라 전환은 곧바로 긍정적 효과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편향의 문제는 기술 확산과 함께 필연적으

로 따라온다. 특히 연구 자료와 학습 기록이 대규모로 축적되는 환경에서는 관리 체계의 설계가 곧 신뢰의 문제로 이어진다. 외부 플랫폼 의존을 줄이고 내부 관리 구조를 정비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대응이다. 데이터에 대한 통제 권한은 기술적 자립성과 연결될 뿐 아니라, 연구의 독립성과도 직결된다. 연구 데이터가 외부 기업의 학습 자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대학의 공공성과 학문적 자율성 역시 흔들릴 수 있다.

이 점에서 대학에서의 AI 인프라 전환은 단순한 시스템 교체나 장비 확충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것은 기술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내부 자산으로 간주하고 어떤 기준 아래 활용을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멀티 LLM 체계, 통합 정보 플랫폼, 이른바 AI 캠퍼스 전략은 형태는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운영의 중심을 데이터 기반 구조로 이동하고 있다.

3. 교육과 평가 체계의 재조정과 제도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대학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가장 먼저 변화된 영역은 교육과 평가이다. AI 인프라 구축이 대학 운영 구조의 문제였다면 교육과 평가는 대학의 존재, 본질과 직결된 부분이다.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학업 성취로 인정할 것인지, 그 성취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요즘 대학생들의 학습 방식은 과거 세대와 이미 크게 달라졌다. 최근 서울디지털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의 90% 이상이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으며, 다수는 두 가지 이상의 AI 도구를 병행한다고 답했다.¹² 주로 보고서 작성과 요약, 연구 보조, 아이디어 발상, 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한다고 했다. 이것은 이제 AI가 부수

10 변인호, 「서강대, 150억원 규모 초대형 인프라 투자... AI로 초지능형 하이브리드 캠퍼스 전환」, 『조선일보』, 2025.12.18.

11 벡트 시테크 블로그, 「인공지능이 교육을 어떻게 바꾸는가? 교육 인프라의 인공지능 전환(AI) 보고서」, 2025.4.10.

12 김나혜, 「서울디지털대 'AI실무활용전공' 신설」, 『중앙일보』, 2026.1.26.

적인 도구가 아니라 학습 전략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여러 AI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의 능력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텍스트 생성에는 ChatGPT를 사용하고, 정보 탐색에는 Perplexity AI를 사용하며, 번역이나 코드 보조에는 Gemini와 같은 특화 모델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일관된 전략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활용은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AI의 기능을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문제 해결의 과정 속에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활용하는 일은 서로 다른 역량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흐름을 반영해 일부 대학에서는 ‘AI 실무 활용 전공’과 같은 새로운 과정을 신설하고 있다.¹³ 교육 과정은 AI 전환(AX), AI 크리에이터, 생성형 AI 활용 등으로 세분화되며, 단순한 AI 기능 습득을 넘어 실제 업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목표로 한다. 즉 프롬프트 설계, 워크플로 자동화, 데이터 시각화 교육처럼 결과물을 빠르게 생산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순서로 사고를 전개하며, 도구를 어느 지점에서 사용할 것인가를 포함하여, AI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단계를 넘어, 활용 전략을 설계하는 단계로 변화했다.

AI가 학습 과정에 일상적으로 개입하면서 평가 방식 또한 재검토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과제 초안 작성, 문장 교정, 자료 정리와 같은 단계에 AI가 참여하는 환경에서 최종 결과물만으로 학습자의 사고 과정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일부 대학에서 일어난 부정 행위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표면화했지만, 전면 금지로 대응하는 방식은 현실과 어긋난다. 이미 학습 과정에 깊이 들어와 있는 AI를 행정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실행 가능성도 낮고, 교육적 설득력도 충분하지 않다.

이와 관련해서 교육부는 ‘수행평가에서의 AI 활용 관

리 방안’을 마련하였다.¹⁴ 핵심은 일률적 금지가 아니라, 명확한 기준 아래 활용을 관리하는 데 있다. 교사는 평가 목적과 요소에 따라 AI 활용 범위를 사전에 설정하고, 학생은 사용한 도구와 입력 내용, 결과 반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한다. 수업 시간 내 과정 관찰을 강화하는 원칙 역시 중요하다. 이것은 최종 결과물만을 평가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사고의 전개 과정 자체를 평가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다.

초중등 단계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AI 책임교육’을 포함한 종합 계획을 통해 기초 소양 교육과 진단 체계를 제도화하였다.¹⁵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본 역량으로 간주하되, 올바른 활용과 책임 의식을 함께 강조하는 방향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학은 이미 AI 활용 경험을 지닌 학생들을 전제로 교육과정을 설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대학 내부에서도 가이드라인 제정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대는 AI를 창의성을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으나, 그 결과를 비판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하였다. AI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판단과 책임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인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것은 활용을 인정하되 학문적 검증과 책임의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 과정에서 학문 윤리에 대한 질문도 다시 제기된다. 저자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가, AI가 생성한 문장을 수정·편집한 결과물의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저작권은 어떻게 보호되어야 하는가.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규정의 목록이 아니라, 학문 공동체가 공유해야 할 기준과 책임의 범위를 재확인하는 장치라 할 수 있다.

AI 활용을 둘러싼 논의는 종종 효율성과 학문적 진

14 장희주, 「교육부,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관리 방안’ 마련」, 『조선에듀』, 2025.12.23.

15 강여울, 「주도적 AI 인재 양성한다. 서울교육청,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 발표」, 『조선에듀』, 2025.12.23.

13 김나혜, 「서울디지털대 ‘AI실무활용전공’ 신설」, 『중앙일보』, 2026.1.26.

정성의 대립 구도로 제시된다. 그러나 두 가치는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활용의 범위를 분명히 하고 검증 절차를 갖춘다면, AI는 사고를 대신하는 장치가 아니라 사고를 확장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를 허용할 것인지 명확히 하고, 결과를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제도화하는 일이다. 할루시네이션 가능성을 전제하고 교차 확인을 습관화하며, 알고리즘 편향을 분석하는 훈련은 이제 새로운 학습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

평가 방식의 변화도 이러한 흐름과 연결되어 있다. 이제 학습 결과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의 이동은 단순한 형식 조정이 아니다. 학생이 어떤 질문을 설정했고, 어떤 결과를 선택했으며, 어떤 기준으로 수정하고 보완했는지를 평가에 포함시키는 방식은 사고의 전개 과정을 드러낸다. 이 지점에서 AI 활용은 판단을 흐리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판단의 단계를 가시화하는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

대학에서의 수업 설계 또한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데이터 분석 과제에서 AI로 초벌 분석을 수행한 뒤, 그 결과의 전제와 한계를 학생이 직접 점검하도록 하는 방식은 이미 여러 강의에서 시도되고 있다. 문학 창작 수업에서도 자료 탐색 단계에는 AI를 활용하되, 서사 구조의 구성과 의미의 조직은 학생이 책임지도록 하는 접근이 확산되고 있다. 기술과 해석을 분리하기보다, 각 단계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결합하는 방식이다. AI는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무엇을 채택하고 어떻게 수정할지는 결국 인간의 판단에 달려 있다.

이러한 변화는 대학 교육의 성격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 대학은 정보를 전달하는 공간이라기보다 판단과 책임의 주체를 길러내는 곳이다. AI가 지식 생산의 일부를 담당하는 환경에서는 ‘얼마나 많이 생성했는가’보다 ‘어떻게 검증하고 해석했는가’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된다. 대학 교육의 무게 중심은 생성 자체보다 검증의 방

법, 해석의 근거, 그리고 책임의 윤리를 가르치는 데로 이동하고 있다.

공공성과 지역 책무성을 함께 지닌 국립대학의 경우 그 설계는 더욱 정교해야 한다.¹⁶ 거점 국립대학인 강원대는 AI 사용의 전면 허용과 단순 규제라는 이분법을 넘어, 지역 산업과 연결된 문제 해결형 교육 모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농생명, 환경, 의료, 관광 등 지역 특화 분야와 AI를 접목한 교과를 설계하고,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해 실제 역량을 확인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기술 활용이 지역 산업의 과제 해결과 이어질 때 교육의 의미도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학문 윤리와 데이터 관리 원칙을 명확히 하여 공적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AI 활용 기록의 의무화, 프롬프트와 수정 과정의 공개, 결과 검증 절차의 제도화는 통제를 위한 장치라기보다 투명성을 위한 조건이다. 기술 확산의 속도를 무작정 따라가기보다, 활용의 기준과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제시하는 일이 바로 강원대가 해야 할 일이다.

4. 학문 구조 재편과 인문 사회 분야의 대응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은 대학 인프라나 교육 방식의 변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것은 학문을 분류하고 영역을 나누었던 기존의 분류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인 학과 구조는 오랜 시간 동안 세분화를 거치며 형성되어 왔다. 그리고 각 학문은 고유한 방법론과 언어를 통해 각각의 경계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AI는 데이터 처리와 알고리즘 설계, 모델 학습이라는 공통의 기술 토대 위에서 작동하며, 전통적인 학

16 정상필·박광희, 「국·공립대학의 AI 교과목 운영 현황과 교과 구조 분석」,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43(5),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2025, 445~457쪽.

문 구획을 자연스럽게 넘나들고 있다. 동일한 기술과 분석 방식이 의학, 농업, 경영, 문학에까지 폭넓게 활용되면서, 전공 간의 경계는 점차 느슨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대학은 새로운 학과나 전공을 개설하는 문제를 넘어, 기존 전공이 어떤 정체성과 역할을 유지할 것인지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이 변화는 단순히 AI의 첨단 기술을 교육 현장에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학문 분류 체계와 교육 과정의 구조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하는 과제와 직결된다. AI는 특정 분야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학문 구성 원리와 연구 방식에 변화를 재편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국내 대학에서는 AI를 독립된 학문 영역으로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숭실대는 인공지능 단과대학과 AI전문대학원 체제를 구축하여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하는 교육과 연구 구조를 마련했다. 이것은 AI를 단순한 응용 기술이 아니라 독자적인 연구 분야로 인정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알고리즘 이론, 데이터 사이언스, 산업 연계형 트랙 등으로 세분화된 전공 체계는 기초 연구와 현장 적용을 동시에 염두에 둔다. KAIST 또한 독립 AI 단과대학을 출범시키며 기존 학과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 융합 모델을 제시했다. 이처럼 AI는 특정 학과의 하위 전공이 아니라, 학문 구조를 재편하는 중심축으로 기능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과정에서 학문의 분화와 융합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단과대학의 형태로 독립성을 확보하면서도, 의료, 환경,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와의 결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그 결과 확고했던 전공의 경계는 점차 유연해지고, 문제 해결을 중심에 둔 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전통적인 방식의 학문 구획의 방법이나 안정성은 약화되는 반면, 적용 범위와 확장 가능성은 넓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이공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오

히려 통번역, 문학, 예술과 같은 인문사회, 예술 분야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기계 번역과 이미지 생성 기술이 창작과 해석의 영역에 직접 개입하면서 기존의 전문성은 도전을 받는다. 그럼에도 최근의 흐름은 배제나 저항에 머물지 않는다. 기술을 외부로 밀어내기보다는 역할을 재조정하며 공존의 방식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서울대 동양화과는 ‘통합매체3’ 수업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미지 생성 실습을 운영하고 있다. 학생이 직접 그린 밑그림을 AI로 확장하거나, 작품의 세계관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참고 도구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술은 표현의 스펙트럼을 넓히지만, 무엇을 그리고 어떤 맥락에 배치할 것인지는 여전히 학생의 몫이다. 연세대 국어국문학과와 ‘시 쓰기’ 수업도 유사한 원칙을 취한다. 자료 탐색과 문장 교정 단계에서만 AI 활용을 허용하고, 시적 구성과 감성적 판단은 학생이 직접 책임지도록 한다. 성균관대 중어중문학과와 번역 수업은 AI 번역 결과를 분석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핵심으로 삼는다. 초벌 번역은 기계가 수행하되, 문맥과 문화적 함의를 다듬는 작업은 인간의 판단에 맡긴다.¹⁷

이들 사례는 공통적으로 AI를 배제하지 않는다. 대신 생산의 초기 단계는 AI에 맡기고, 의미의 확정과 해석의 책임은 인간에게 귀속시키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기술은 속도를 높이고 범위를 넓히는 역할을 하며, 깊이와 방향은 학습자의 판단에서 나온다. 이것은 인문사회계가 기술을 단순한 위협으로 간주하기보다, 자신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는 계기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AI의 확산은 인문사회 분야에 위기와 새로운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정보가 빠르게 생성되는 환경에서 무엇을 선별하고 어떻게 맥락화할 것인지는 더욱

¹⁷ 전남혁, 「AI 그림 배우는 동양화과, 시에 활용 국문과. 생존 위한 ‘공존’」, 『동아일보』, 2026.2.5.

중요해진다. 비판과 해석, 가치 판단은 여전히 AI가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이다. 오히려 이러한 역량이 학문의 중심에 다시 놓인다. 저자의 범위와 책임, 생성물에 대한 책임, 데이터 입력 과정의 윤리 문제는 단순한 규정의 문제가 아니라 학문 공동체가 공유할 기준의 문제이다. AI 기술과의 긴장은 해석 주체의 인간의 위치와 대학의 역할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동시에 AI의 확산으로 융합 연구의 가능성도 넓어지고 있다. 문학 텍스트 분석에 데이터 기반 기법을 접목하거나, 역사 연구에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는 시도는 새로운 연구 지평을 열고 있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생성형 AI와 서사 연구의 결합을 통해 새로운 교육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인문사회계는 기술을 외부로 밀어내기보다, 기존의 해석 틀과 연결하여 확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거점 국립대학인 강원대가 마주한 조건은 수도권 대학의 전략을 그대로 따르는 방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대규모 AI 단과대학 설립이 하나의 선택지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유일한 해법은 아니다. 오히려 강원 지역의 산업 구조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지역성과 결합한 융합 모델을 설계하는 편이 더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하다. 농생명, 산림, 환경, 관광, 바이오·의료와 같은 분야는 이미 지역 경제의 기반을 이루고 있으며, 이 영역에서 AI를 접목하는 방식은 교육과 연구를 동시에 재구성할 수 있다.¹⁸

예를 들어, 스마트 농업을 위한 데이터 분석, 산림 자원 관리와 기후 변화 예측 모델링, 지역 관광 자원의 콘텐츠 자동화 설계, 의료 영상 분석과 진단 보조 시스템 개발은 모두 지역 산업과 직결된다. 이러한 교과와 연구 트랙을 체계적으로 설계한다면, 학문 구조 개편은 추상

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지역 혁신 전략과 맞물린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은 'AI를 가르치는 대학'이 아니라 'AI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대학'이라는 방향을 분명히 하는 일이다.

인문사회 분야에서도 역할은 분명하다. 생성형 AI를 연구와 교육에 활용하되, 그 한계와 편향을 분석하는 비판적 훈련을 병행해야 한다. 문학·역사·문화 연구에서 AI 기반 텍스트 분석을 시도하되, 결과의 왜곡 가능성과 맥락 상실을 점검하는 교육을 제도화할 수 있다. 지역 설화와 문화 자원을 데이터화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 역시 인문학과 기술의 접점을 확장하는 사례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술 습득 자체가 아니라, 지역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활용 모델을 구축하는 일이다.

국립대학으로서의 책무는 기술 응용을 넘어선다. 데이터 관리 원칙과 연구 윤리의 정립은 공공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다.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출처 명시와 활용 기록을 제도화하며, 연구 데이터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일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전제 조건에 가깝다. 특히 지역 사회와 협력하는 연구에서는 데이터의 소유와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것은 기술 자립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학문적 자율성을 지키는 문제이기도 하다.¹⁹

결국 강원대의 변화 방향은 속도 경쟁에 있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떤 원칙 아래 학문 구조를 재편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이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기술을 어디까지 수용하고 어떤 기준으로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 지역 산업과 결합한 융합 교육, 인문사회 분야의 비판적 AI 역량 강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관리 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AI 전환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대학의 정체성을

18 정상필·박광희, 「국·공립대학의 AI 교과목 운영 현황과 교과 구조 분석: 융합·다학제적 관점의 비교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43(5),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2025, 445~457쪽.

19 고영주·조택희, 「지역의 관점에서 본 대학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16(2), 한국지역경제학회, 2018, 79~98쪽.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5. AI 전환 국면에서 대학의 전략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은 대학 내부의 자율적 실험이나 개별 학과 차원의 혁신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²⁰ 이것은 국가 경쟁 전략, 산업 구조의 전환, 지역 발전 정책과 맞물려 전개되는 구조적 변화의 일부다. AI가 반도체·바이오·모빌리티와 더불어 첨단 산업의 기반 기술로 자리 잡으면서, 고등교육은 인재 양성과 연구 역량을 떠받치는 중심 거점으로 다시 위치 지워지고 있다. 대학은 더 이상 독립된 학문 공동체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혁신 체계 안에서 역할을 나누어 맡는 전략적 주체로 편입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AI 중점 대학’ 정책은 이러한 흐름을 뚜렷하게 보여준다.²¹ 연간 최대 3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통해 AI 특화 교육과 연구를 집중 육성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단순한 학과 지원을 넘어 대학 차원의 체질 개선을 겨냥한다. 이 맥락에서 AI 역량은 부가적 특성이 아니라 대학 경쟁력을 가늠하는 주요 기준으로 자리 잡는다. 재정 지원은 학사 구조 개편과 조직 재설계를 이끄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대학 간 차이는 제도적으로 더 선명해진다. 선정 대학은 연구 인프라 확충과 우수 인력 확보, 대형 산학 협력 과제 유치에서 우위를 점한다. 반면 비선정 대학은 특성화 방향과 전략을 다시 정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정책은 지원을 넘어 대학 지형을 다시 그리는 장치가 된다.

이와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산업 연계형 대학 모델을 확산시키고 있다. 호서대학교는 RISE를 활용해 첨단산업 계약학과를 신설하였다. 산업체와의 협약을 토대로 구성된 교육과정은 졸업 이후 취업과 직접 이어지는 구조를 갖는다. 이 과정에서 AI는 데이터 분석, 공정 자동화, 품질 예측과 같은 실무 역량을 체계화하는 기반으로 활용된다. 원광대는 원광보건대와 통합을 계기로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학사 구조를 손질하였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통합은 산업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시도다. 의료·보건 데이터 분석과 디지털 헬스케어 교육은 지역 산업과 맞닿아 있으며, AI는 그 연결을 매개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한다.²²

정책과 산업 수요가 결합되면서 교육 내용과 연구 방향도 실질적으로 달라진다. AI는 농업, 바이오, 제조, 관광 등 여러 산업 영역에 적용되고, 대학은 이에 맞춘 융합 교과와 연구 과제를 마련한다. 전통적 학문 분류만으로는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문제 해결 중심 접근이 강화되면서 전공 경계는 점차 유연해진다. 특정 학문 내부의 축적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산업 전환 속도에 대응하는 역량이 대학 평가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다. 교육과 연구는 점차 데이터 기반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심으로 재편된다.

해외 주요 대학들은 인공지능을 특정 학과의 전문 기술로 한정하지 않고, 전 학문 분야를 관통하는 기초 역량으로 재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I 관련 교육은 교양과정, 전공 심화과정, 산학 연계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체계적으로 통합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전공과 무관하게 데이터 이해와 알고리즘적 사고를 필수 소양으로 익히도록 요구받고 있다.

국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AI 활용 능력은 단순

20 정상필·박광희, 「국·공립대학의 AI 교과목 운영 현황과 교과 구조 분석: 융합·다학제적 관점의 비교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43(5),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2025.

21 교육부,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 발표」, 2025.11.10. <https://www.moe.go.kr>.

22 교육부, 「대학 현장의 혁신 동력으로 작동하다」, 2025.12.22. <https://www.moe.go.kr>.

한 기술 숙련도를 넘어 대학의 연구 경쟁력과 교육 혁신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간주된다. 연구 생산성, 산업 연계 성과, 졸업생의 직무 적응력 등이 AI 기반 역량과 연결되면서, 인공지능 교육 체계는 대학의 위상과 직결되는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가 정책의 방향, 산업 구조의 변화, 국제 경쟁 환경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대학의 전략은 점점 더 분화되고 있다. 어떤 대학은 연구 중심 AI 단과대학을 강화해 고급 인재 양성과 원천 기술 축적에 힘을 쏟는다. 다른 대학은 계약학과와 실무형 전공을 확대하며 산업 현장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선택한다. 또 다른 대학은 인문사회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기술 이해와 비판적 해석을 함께 다루는 모델을 설계하려 한다. 인공지능은 이제 하나의 전공을 넘어, 대학이 어떤 성격을 지향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가늠하게 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재정 지원 규모, 산학 협력 과제 수주 실적, 정부 정책 사업 참여 여부는 이러한 선택에 현실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기 성과에 맞춘 대응에 머물 것인지, 장기적인 구조 개편을 염두에 두고 체계를 설계할 것인지에 따라 대학의 모습은 크게 달라진다. 산업 수요에 부응하면서도 학문적 자율성을 지키는 판단, 정책 자원을 활용하되 일회성 사업에 의존하지 않는 설계가 요구된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학이 어떤 원칙과 책임 아래 변화를 선계할 것인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만든다.

거점 국립대학인 강원대가 처한 상황은 단순하지 않다. 수도권 대학이 대규모 연구 인프라와 AI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체질을 바꾸고, 일부 지역 대학이 선제적으로 통합 플랫폼과 멀티 LLM 기반 환경을 구축하는 흐름 속에서, 동일한 방식을 택하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되기 어렵다. 강원대의 선택은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지역 산업 기반과 역사·문화 자산을 함께 묶어내는 구조적 설계가 필요하다.

이공계 영역에서는 강원 지역의 산업 지형과 연계된 융합 전략이 요구된다. 농생명·산림·환경, 바이오·의료, 관광 산업은 이미 강원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 스마트 농업 데이터 분석, 기후 변화 예측 모델링, 산림 재해 대응 시스템, 의료 영상 분석 보조 기술, 관광 콘텐츠 자동화 제작과 같은 분야는 AI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영역을 중심으로 특화 연구센터와 융합 전공을 구축한다면,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강원 지역 혁신과 교육 체계를 동시에 재구성할 수 있다. 이것은 외부 정책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 조정이 아니라, 강원대의 장기적 학문 구조 개편과 맞물려야 할 과제다.

그러나 강원대의 강점은 산업 기반에만 있지 않다. 접경 지역이라는 지리적 조건, DMZ와 남북 분단의 역사, 강원 고유의 민속과 생활 문화는 다른 대학이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연구 자산이다. 인문사회 계열은 이 지점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DMZ 일대의 구술 자료, 전쟁과 분단의 기억, 이산가족 증언, 접경 지역 공동체의 생활사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축적하고, 텍스트 마이닝이나 의미망 분석을 통해 기억의 구조를 탐색하는 연구는 기술과 인문학이 만나는 중요한 지점이다. AI는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패턴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해석하고 역사적 맥락을 부여하는 일은 연구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²³

강원의 민속학 자산 또한 중요한 축이다. 강릉단오제를 비롯한 세시풍속, 산간 지역의 제의 문화, 어로와 농경 생활, 설화와 구비문학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디지털화하며,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승 양상과 변용 과정을 비교 분석하는 교육 및 연구 모델을 설계할 수 있

23 유준동, 「군사 접경지역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의 역사 문화자원 콘텐츠와 활용 방안」,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 19,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유준동, 「강원도 속초 설악동의 인문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 활성화 연구」,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 20,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다.²⁴ 동시에 지역 설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 제작 수업을 운영하면서, AI 생성 결과의 한계와 편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방식은 기술 활용과 해석 훈련을 결합한다. 이것은 단순한 기능 교육이 아니라 지역 기억을 현재화하는 작업이다.

아울러 거점 국립대학이라는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 또한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AI 인재 양성을 단순한 취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 두지 않고, 지역 균형 발전과 연결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지역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데이터 분석, 공정 자동화, 수요 예측과 같은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대학이 기술 이전과 실증의 통로를 제공하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교육 및 연구 성과가 지역 산업 생태계 안에서 순환하도록 만드는 장치이다.

또한 대학 교육은 지역 청년의 이탈을 늦추는 조건과도 연결되어야만 한다. 지역 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 기반 수업, 현장 실습,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확대함으로써 학습 경험이 곧 지역 정주 가능성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연구 성과 역시 학술지에 머무르지 않고, 공개 세미나와 데이터 공유 플랫폼 등을 통해 지역 사회와 연결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술 활용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관리와 연구 윤리 원칙은 더욱 엄격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AI 활용 시 출처 명시와 기록을 제도화하고, 연구 데이터의 저장, 접근, 활용 절차를 명확히 하는 일은 신뢰를 지키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보안 체계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의 정비도 선택 사항이 아니다. 기술 확산의 속도와 무관하게, 공공성을 지닌 대학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먼저 세워야 한다.

한편, 외부 정책 자원은 전략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AI 중점 대학 사업, RISE 체계, BK21, 첨단산업 인재양성 사업과 같은 재정 지원 프로그램은 인프라 확충과 인력 양성의 동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사업 선정 자체가 목표가 되는 순간, 전략은 단기 성과에 매몰될 위험이 있다. 확보한 재원을 학문 구조 개편, 교육과정 재설계, 연구 생태계 조성이라는 중장기 계획과 결합시키지 못한다면 변화는 일시적 조정에만 머문다. 중요한 것은 외부 정책 흐름에 수동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대학 내부의 비전과 축적된 역량을 기준으로 자원을 다시 정립하는 일이다.

강원대의 경우 그 기준은 분명하다. 공학적 인프라 확충과 지역 산업 연계는 한 축이고, DMZ와 남북 분단 연구, 강원 민속학과 지역 문화 자산의 디지털 전환은 또 다른 축이다. 이 두 축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틀 안에서 결합될 때 전략은 설득력을 갖는다. 예컨대, 접경 지역의 역사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고, 데이터 분석 기법을 활용해 기억과 서사의 구조를 탐색하는 연구는 기술과 인문학을 동시에 아우른다. 지역 산업 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환경 모델 연구 역시 산업 혁신과 교육을 연결해야만 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자체가 새로운 방향을 절대적으로 제시해 주지는 않는다. 무엇을 우선에 두고, 어떤 원칙에 따라 제도화하느냐에 따라 그 쓰임과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 지역의 현실과 학문 공동체의 책임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AI는 단순히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는 장치에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대학이 지닌 고유한 성격과 역할을 새롭게 드러내는 매개가 될 수 있다.

강원대가 택해야 할 방향도 여기에 있다. 외형적 규모를 키우는 경쟁에 매달리기보다, 강원의 역사와 산업 구조, 문화 자산을 토대로 기술을 재해석하고 구체적 교육과 연구 모델로 풀어내는 전략이 요구된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AI를 도입하고, 그 성과를 다시 지역 사회와 공유하는 구조를 만들 때 비로소 대학의 정체

24 장정룡, 「K-민속극으로서의 속초 사자놀이 연구: 기원과 전승 양상에 대한 종합적 고찰」, 『International Journal of K-Culture / K-Culture융합연구』 7(7), K-Culture 융합연구소, 2025.

성과 기술 혁신은 같은 지점에서 만난다.

6. 마무리와 과제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은 대학 운영 체계와 교육의 방향을 전면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하는 시점에 들어섰음을 보여준다.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이미 AI 활용이 일상화되고 관리 기준이 마련된 상황에서, 대학만이 예외일 수는 없다. 논쟁의 초점은 AI의 단순한 도입 여부가 아니라, 어떤 원칙과 체계 아래 이를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인가이다.

캠퍼스 인프라 측면에서 AI는 선택적 보조 수단을 넘어 운영의 기반으로 옮겨가고 있다. 멀티 LLM 환경, 통합 정보 플랫폼, 데이터 내부 관리 체계의 구축은 대학이 외부 기술을 소비하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위치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지원, 행정 효율, 국제화 정책은 더 이상 분리된 과제가 아니다. 데이터 축적과 분석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며, 의사결정 역시 경험과 관행을 넘어 근거 기반 판단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관건은 규모가 아니라 관리 원칙과 데이터 통제 기준을 얼마나 명확히 세우는가에 있다.

교육과 평가 체계 역시 같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학생들의 AI 활용은 이미 보편적이며, 일괄 금지 방식은 현실성과 설득력을 확보하기 어렵다. 활용 범위를 사전에 설정하고, 사용 과정과 출처를 기록하며, 결과뿐 아니라 사고의 경로를 평가에 포함시키는 접근이 요구된다. 이것은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라기보다 학문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에 가깝다. AI 리터러시는 기능 숙련을 넘어, 결과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책임을 감당하는 태도까지 포함한다. 학습의 중심은 산출물의 양이 아니라 판단과 해석의 깊이로 이동하고 있다.

학문 구조 또한 분화와 융합이 동시에 전개되는 양상

을 보인다. AI 단과대학의 신설과 전공 세분화는 기술 중심 영역의 독립성을 강화한다. 반면 인문사회·예술 분야에서는 배제 대신 공존을 택하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 초벌 생성은 기계에 맡기되, 의미의 구성과 가치 판단은 인간이 담당하는 방식은 학문 정체성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된다. 기술과의 긴장은 해석 주체의 역할을 흐리기보다 오히려 또렷하게 드러낸다.

정책과 산업 환경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촉진한다. AI 중점 대학 지정, RISE 체계, 각종 규제 특례는 대학 간 전략 차이를 확대한다. 대학은 국가 혁신 체계 속에서 산업 수요와 지역 발전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해외 대학들이 AI 숙련도를 기본 역량으로 규정하는 흐름 역시 이와 맞닿아 있다. 경쟁의 핵심은 도입 속도가 아니라, 방향 설정의 일관성과 구조 설계의 치밀함에 있다.

이 전환의 한가운데에서 강원권 거점 국립대학인 강원대가 맡은 역할은 분명하다. 지역 특화 산업과 결합한 AI 융합 교육을 설계하고, DMZ와 분단 연구, 강원 민속학과 지역 문화 자산을 디지털 전환과 연결하는 연구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동시에 데이터 관리 기준과 연구 윤리 원칙을 분명히 세워 공공적 신뢰를 지켜야 한다. 지역 중소기업과의 협력, 청년 정주를 고려한 교육 구조, 연구 성과의 지역 환류 체계 역시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결국 생성형 AI는 대학의 몇몇 기능을 보완하는 수단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지식을 만들어내고, 검증하며, 사회와 연결해 온 대학의 방식 자체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대학의 인프라, 교육과 평가, 학문 구조, 정책 환경이 서로 분리된 채 대학이 운영될 수는 없다. 이 네 요소가 하나의 설계 안에서 긴밀히 엮일 때, 대학의 새로운 미래가 확립될 것이다. 결국 최종 관건은 생성형 AI 기술을 도입했는가의 여부가 아니라, 대학에서 어떤 원칙과 책임 아래 그것을 제도 속에 자리잡게 하느냐에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고영구·조택희, 「지역의 관점에서 본 대학정책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한국지역경제연구』 16(2), 한국지역경제학회, 2018.
- 박인옥, 「강원특별자치도의 다문화 정부 정책과 교육 혁신: 글로벌 대학 연계와 지역 소멸 대응 전략을 중심으로」,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 22,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6.
- 박종진,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AI운영학과 교육과정 개발」, 『문화기술의 융합』 8(6),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22.
- 벡트 시테크 블로그, 「인공지능이 교육을 어떻게 바꾸는가? 교육 인프라의 인공지능 전환(AI) 보고서」, 2025.4.10.
- 유춘동, 「강원도 속초 설악동의 인문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역문화 활성화 연구」,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 20,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 _____, 「군사 접경지역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의 역사 문화자원 콘텐츠와 활용 방안」,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 19,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 이수환·송기상, 「초중등교육에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시사점 탐색: 국내·외 가이드라인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정보교육학회논문지』 28(5), 한국정보교육학회, 2024.
- 장정룡, 「K-민속극으로서의 속초 사자놀이 연구: 기원과 전승 양상에 대한 종합적 고찰」, 『International Journal of K-Culture / K-Culture융합연구』 7(7), K-Culture 융합연구소, 2025.
- 정상필·박광희, 「국·공립대학의 AI 교과목 운영 현황과 교과 구조 분석: 융합·다학제적 관점의 비교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43(5),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2025.
- 정재연, 「글로벌대학30 사업의 현황과 과제」, 『글로벌 어문학 문화 연구』 20(20), 글로벌어문학문화연구소, 2025.

2. 기타 자료

- 강여울, 「주도적 AI 인재 양성한다. 서울교육청, 초중고 AI 교육 종합계획 발표」, 『조선예듀』, 2025.12.23.
- 강태현, 「한림대, 캠퍼스를 AI 활용 인프라로 전환...멀티 LLM 도입」, 『연합뉴스』, 2026.2.10.
- 교육부, 「대학 현장의 혁신 동력으로 작동하다」, 2025.12.22, <https://www.moe.go.kr>.
- _____,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 발표」, 2025.11.10, <https://www.moe.go.kr>.
- 국회도서관 국가전략포털, <https://nsp.nanet.go.kr/plan>.
- 김나혜, 「서울디지털대 'AI실무활용전공' 신설」, 『중앙일보』, 2026.1.26.
- 김재기, 「생성형AI 유니아이(UNIAI) 공개, 국내 대학 최초 자체 개발 GPU 인프라 직접 구축」, 『UNIST』, 2025.11.11.
- 변인호, 「서강대, 150억원 규모 초대형 인프라 투자... AI로 초지능형 하이브리드 캠퍼스 전환」, 『조선일보』, 2025.12.18.
- 임호진, 「AI는 대학을 어떻게 바꾸고 있을까...지식의 개념도 바뀐다」, 『교수신문』, 2025.9.18.
- 장희주, 「교육부, '수행평가 시 인공지능 활용 관리 방안' 마련」, 『조선예듀』, 2025.12.23.
- 정희경, 「AI를 모든 학문과 도시 문제 해결의 기반으로 삼겠다」, 『한겨레』, 2026.2.9.

Abstract

Reconfiguring the University System in the Era of Generative AI

Kangwon National University's Strategic Response Focused on Infrastructure Innovation, Educational and Assessment Reform, and Academic Restructuring

Park, In-Ock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expansion of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reshaping higher education beyond instructional innovation, influencing campus infrastructure, assessment systems, disciplinary organization, and university-industry relations. Universities are introducing multi-LLM environments, integrated information platforms, and strengthened internal data governance, marking a shift from passive technology adoption to institutional management and oversight. In the educational sphere, widespread student use of AI has prompted formal guidelines requiring transparent documentation of usage and greater emphasis on process-based evaluation. At the disciplinary level, AI-focused colleges and specialized tracks are expanding, while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pursue strategies of critical engagement rather than exclusion.

These developments unfold within broader national innovation policies,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global competition, intensifying strategic differentiation among institutions. This study examines these structural shifts and proposes a strategic direction for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s a regional flagship institution. It argues that sustainable AI integration should align with regional industrial strengths and distinctive assets, including DMZ-related research and Gangwon's cultural heritage. The central challenge is not the speed of technological adoption but the establishment of long-term institutional frameworks grounded in regional realities and the university's social responsibility.

Keywords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AI), Restructuring of the University System, Reconfiguration of Educational and Assessment Systems, Reorganization of Academic Structur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이 논문은 2026년 7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6년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6년 8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